

蘇軾 詩의 ‘曠達’ 風格형성에 대한 고찰

車榮益*

<목 차>

1. 서론
2. 曠達의 의미
3. 黃州시기 시와 인생관의 3단계 변화
 - 3.1 臨臯亭시기
 - 3.2 東坡시기
 - 3.3 雪堂시기
4. ‘曠達’ 풍격의 양상
 - 4.1 일상생활에 대한 享受
 - 4.2 諧謔적 특징
5. 결론

1. 서론

風格이란 어떤 작가가 작품 속에서 빚어내는 총체적 인상 또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가만의 인생경험, 문학수양, 철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한 작가의 문학적 풍격과 그 풍격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작가의 전반적인 인생경험과 文學修養, 哲學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며 또 그 작가의 작품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소식의 문학풍격을 이야기 할 때 ‘豪放’, ‘曠達’, ‘平淡’이라고 한다. 이런 풍격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적 특징이며 소식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풍격은 사실 각기 다른 것이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아니라 소식이 복잡다단한 인생경험을 거치면서 晩年の ‘平淡’한 풍격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형성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曠達’의 문학풍격은 소식이 烏臺詩案으로 황주에 폄적된 후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역대 중국사대부들에게 중요한 문학과 인생의 典範으로 작용한다. 王國維는 “소식의 사는 광달하고 신기질의 사는 호방하다.(東坡之詞曠, 稼軒之詞豪)”¹⁾라고 하여 소식의 사를 ‘曠’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소식 모든 문학전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賦(前赤壁賦, 後赤壁賦), 1詞(念奴嬌)의 문학작품은 ‘曠達’ 문학풍격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는 소식의 ‘曠達’ 풍격에 대한 연구는 黃州 貶謫이라는 소식의 인생사건 속에서 儒佛道 三家사상의 영향을 흡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견지에서 일관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風格이란 단순히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형성과정을 염두에 두고 平淡한 풍격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소식 문학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曠達’ 풍격이 황주시기의 詩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초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曠達의 의미

소식 ‘平淡’문학풍격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것은 ‘豪放’한 풍격이다. 이 ‘豪放’한 풍격은 황주시기 ‘曠達’풍격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豪放’의 사전상의 의미는 “1. 기백이 커서 구속됨이 없는 것으로 사람의 감정이 분방하여 세세한 절개에 얽매이지 않는 것. 2.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단성 있고 기백과 힘이 있는 것. 3. 시문의 풍격이 豪邁하고 구속됨이 없는 것.”²⁾이라고 하여 어떤 사람의 氣像과 精神이 커서 어디에 얽매이지

1) 《人間詞話》 卷上.

않고 결단력이 있으며 감정이 자유분방한 것, 또는 이러한 기상, 정신, 감정이 작품에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문학풍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唐末 司空圖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二十四詩品> 제12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豪放>

觀花匪禁, 꽃을 보는데 금하는 사람 없고
 吞吐大荒, 온 천지를 삼켰다 토하니
 由道返氣, 도로부터 큰 氣로 가니
 處得以狂, 得意한 마음으로 처하며 얽매임 없네.
 天風浪浪, 하늘의 바람은 호탕하게 불고
 海山蒼蒼, 바다의 산은 푸르고 푸르니
 眞力彌滿, 참된 힘이 충만하니
 萬象在旁, 천지만물은 바로 옆에 있네.
 前招三辰, 앞으로 일, 월, 성신을 부르고
 後引鳳凰, 뒤로 봉황을 끌어오며,
 曉策六鰲, 새벽에 여섯 자라를 부러
 濯足扶桑, 부상에서 발을 씻네.

이 시에서 司空圖는 많은 비유어를 써서 '豪放'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꽃으로 대변되는 천지사물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구경하듯 도에 근거한 浩然之氣로 세상의 得失을 초월하여 얽매임 없이 사는 것을 '豪放'이라고 규정한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관찰보다는 광활한 시야로 天地를 보고 이런 기상을 하늘, 바다, 해, 달, 별(三辰), 봉황, 세상을 떠받친다는 여섯 마리 자라, 해가 뜬다는 扶桑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적 이미지를 정리해보면 세상의 작은 사물이 아니라 아주 큰 사물을 바라보는 정신과 기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豪放'의 풍격과 대비하여 '曠達'의 涵意를 살펴보면 두 풍격의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온다. 司空圖는 《二十四詩品》 중의 '曠達'에서 다음과 같이

www.kci.go.kr

2) 1. 氣魄大而無所拘束, 指人的感情奔放, 不拘細節. 2. 處理事情果斷有魄力. 3. 詩文風格豪邁, 無所拘束. (《漢語大辭典》, 漢語大辭典出版社, 1994.)

묘사한다.

<曠達>

生者百歲, 인생 백년에
 相去幾何, 백년이란 시간 얼마나 되나?
 歡樂苦短, 즐거운 날은 매우 짧고
 憂愁實多, 근심걱정 실로 많네.
 何如尊酒, 어찌하여 한 잔 술로
 日往烟蘿, 무성한 숲으로 가지 않는가?
 花覆茱萸, 꽃이 초가지붕을 덮으니
 疎雨相過, 성긴 비에 벗들과 지내네.
 倒酒既盡, 술 다 마시고
 杖藜行歌, 지팡이 짚고 가면서 노래하자.
 孰不有古, 누가 죽지 않겠는가?
 南山峨峨, 남산만 높고 의연하네.

司空圖는 이 시에서 인간의 삶은 짧고 즐거움보다 고난이 많다고 하며 이런 세상의 이치를 알면 名利를 위해 바쁘게 살 필요 없고 술 마시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는 통달한 경지를 말하고 있다.³⁾ 앞의 호방의 풍격에 비하면 인생의 有限性을 절감한다는 요소와 그런 삶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산다는 점이 다르다. '豪放'에 비해 인생의 절실한 체험을 통한 원만한 인생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소식 연구자 王水照 같은 경우에는 소식의 이러한 풍격에 대해 '豪放'(狂)은 진솔한 개성의 표현이며 깊은 인생의 함의가 포함되지 않은 외향적 특징을 가지는 반면, '曠達'은 是非, 榮辱, 得失에 대한 超越로 내향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여 '豪放'과 '曠達'을 內外의 관계로 파악하고 '曠達'의 풍격을 惠州와 儋州시기의 平淡풍격형성의 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⁴⁾

3) 《詩品通釋》(司空圖 著 曹冷泉 主釋, 西安: 三秦出版社, 1989, 80쪽 참조)에서는 인생의 유한성으로 인한 비애감을 '曠達'로 보고 소극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소식의 '曠達'은 낙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王水照의 <蘇軾的人生思考和文化性格>(《王水照自選集》,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311-314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王水照, 위의 책, 2000, 311-314쪽.

3. '曠達' 風格의 형성

소식의 '曠達'한 문학풍격이 형성되는 데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보다 전체적인 詩風의 변화와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인생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황주시기의 시적 변화를 '臨臯亭時期', '東坡時期', '雪堂時期'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3.1 臨臯亭時期

臨臯亭 시기는 원풍2년 8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30일 정도의 옥중 생활을 거쳐 풀려나 黃州로 폄적되고, 이런 오대시안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을 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은 원풍4년(1081) 황주성 동쪽의 비탈 밭을 얻어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시기 이전까지 보았다. 우선 130일 간의 옥중생활동안 소식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는데, 소식은 시를 통해 당시의 놀라고 절박한 심정을 다음과 노래한다.

내가 일로 인해 어사대 옥에 묶여 있는데 옥리가 점점 꺾박하니 감당하지 못하여 옥중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유와 이별하지 못했으므로 시 두 수를 지어

5) 이런 황주시기 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문명숙의 논문(《蘇東坡 詩 研究-黃州詩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년)에서 "평정의 추구→자연과의 밀착→비의 지양"이라고 제기된 이후 다수의 논문에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다. 필자는 시풍변화의 경계가 되는 <東坡八首>와 <雪堂記>의 시기를 시기구분의 분기점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 중 '臨臯亭시기'라고 이름 짓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臨臯亭으로 소식이 이사를 하는 것은 元豐3年(1080) 5월 말 무렵으로 그 이전의 시작품에까지 적용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소식은 사실 황주를 떠나기 전까지 臨臯亭에 거처하기 때문에 황주초기의 소식의 감정과 인생관을 반영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烏臺詩案 이후 황주초기의 고민과 갈등의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옥졸 양성에게 주어 자유에게 주도록 하다.(予以事繫御史臺獄, 獄吏稍見侵, 自度不能堪, 死獄中, 不得一別子由, 故作二詩授獄卒梁成, 以遺子由, 二首 중 두 번째)

柏臺霜氣夜淒淒, 측백나무 누대의 서리 밤에 처연하고
 風動玲瓏月向低, 바람은 쇠사슬 흔들고 달은 낮게 드리우네.
 夢繞雲山心似鹿, 꿈속 구름에 막혀 마음은 놀란 사슴 같고
 魂驚湯火命如雞, 혼은 끓는 물 타는 불에 놀라 목숨은 도마 위 닭과 같네.
 眼中犀角眞吾子, 눈에 선한 이는 진실로 子由 그대이고
 身後牛衣愧老妻, 죽은 후 덮은 거적에 늙은 처에게 부끄럽네.
 百歲神游定何處, 백년의 삶 어디에서 정해지나?
 桐鄉知葬浙江西, 임지였던 절강 서쪽에 장사지낼 줄 알겠네.

이 시는 소식이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임을 알고 지은 시다. 소식은 이 시에서 구름 덮인 산을 가는 사슴처럼 놀라고 끓는 물과 타오르는 불앞에 잡아먹히는 닭처럼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서술한다. 이런 죽음에 대한 체험과 烏臺詩案이 있게 한 원인에 대한 사색과 극복이 황주시기 소식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황주초기에는 烏臺詩案으로 인한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을 표현한 시작품이 대부분이다.

<定惠院寓居月夜偶出>

幽人無事不出門, 근심 깊은 사람 일없어 문 밖 출입 않다가
 偶逐東風轉良夜, 우연히 동풍을 쫓아 깊은 밤 배회하네.
 參差玉宇飛木末, 들쭉날쭉 처마 나무 끝에 날리고
 繚繞香烟來月下, 구불구불 연기 달 아래 이른다.
 江雲有態清自媚, 강가 구름 자태 있으나 맑아 절로 교태롭고
 竹露無聲浩如瀉, 대나무 이슬 소리 없으나 기세 좋아 쏟아지는 것 같네.
 已驚弱柳萬絲垂, 여린 버들가지 만 가닥 드리웠는데
 尙有殘梅一枝亞, 쇠잔한 매화 한 가지 아직 남아있어 놀라네.
 淸詩獨吟還自和, 맑은 시 혼자 읊조리고 혼자 화답하는데
 白酒已盡誰能借, 백주 벌써 다했으나 누가 빌려줄까?
 不惜青春忽忽過, 청춘 흘연 지나가는 것은 아쉽지 않으나
 但恐歡意年年謝, 즐기는 마음 해마다 쇠할까 두렵네.
 自知醉耳愛松風, 취한 귀 술바람 아기는 것 알므로

會揀霜林結茅舍, 서리 맞은 숲 가려 초가집 지어야겠네.
 浮浮大甑長炊玉, 모락모락 시루엔 항상 고두밥 찌고
 溜溜小槽如壓蔗, 똑 똑 떨어지는 소주고리는 사탕수수물 짜는 것과 같겠네.
 飲中眞味老更濃, 음주의 참된 맛은 나이 들수록 짙지만
 醉裏狂言醒可怕, 취중의 거침없는 말은 술 깨면 두렵네.
 閉門謝客對妻子, 문 닫아 걸고 객 물리쳐 처자식만 대하고
 倒冠落佩從嘲罵, 의관 복장 벗어던지고 마음껏 조롱하고 욕하네.

이 시는 1080년 2월 황주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은 시이다. 이 시에 서 소식은 東風에 이끌려 밤에 밖으로 나와 완연해지는 봄 경치를 감상한다. 그리고는 자연의 경치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마지막 4구절에서 소식은 이렇게 봄 경치에 취해 있다가도 술이 깨면 급변하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만 의지하며 자신을 포함한 조정 대신들을 욕한다고 적고 있다. 원래 시인으로서 사시사철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응하여 살고 싶지만, 자신의 그러한 시심(歡意)을 방해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시의 정조는 총 20구 중 16구까지는 봄경치에 대한 흥취로 감정이 고조되다가 17구부터 기쁨의 정조는 급변하여 소심하고 우울한 정조로 바뀐다. 흥에서悲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의 좌절에서 기인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의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소식의 시작품에서 '海棠花', '梅花', '孤鴻' 등 소식이 보고 듣는 거의 모든 제재는 복잡한 감정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한편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달리 현실을 초월하여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시도 있다.

<石芝>

空堂明月清且新, 빈 당엔 달은 맑고 새로운데
 幽人睡息來初勻, 유인 잠든 숨결 막 고르네.
 了然非夢亦非覺, 분명 꿈은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有人夜呼禰孔賓, '기공빈'하고 누가 부른다.
 披衣相從到何許, 옷을 걸치고 소릴 쫓아 어딘가 가보니

朱欄碧井開瓊戶. 주홍색 난간 깊은 우물 옥으로 장식한 문은 열려있네.
 忽驚石上堆龍蛇. 돌 위 용이나 뱀 같은 덩굴 가득하고
 玉芝紫筍生無數. 옥지와 자순 무수히 나있네.
 鏘然敲折青珊瑚. 창 청색산호 두드려 꺾으니
 味如蜜藕和雞蘇. 맛은 꿀에 저린 연뿌리 석잠풀에 섞은 것과 같네.
 主人相顧一撫掌. 주인은 돌아보고 한 번 박수치니
 滿堂坐客皆盧胡. 당에 가득 손님들 모두 곁걸거린다.
 亦知洞府嘲輕脫. 동부에선 경박함을 조롱함 역시 알겠으니
 終勝嵇康羨王烈. 마침내 혜강이 왕열을 흠모한 것보다 낫네.
 神山一合五百年. 신령한 산 오백년에 한 번 합하는데
 風吹石髓堅如鐵. 종유석에 바람 부니 견고하기 쇠와 같네.

이 시에 붙어 소식 자신의 서문인 詩序⁶⁾에서도 말하듯이 이 시는 元豐3년(1080) 5월 11일 밤에 꿈을 꾸 내용을 시로 옮겨놓은 것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속에 부르는 소리가 들려 쫓아가 어느 집의 문을 열어보니 우물이 있었고 우물 위에는 용이나 뱀처럼 몸을 꼬며 자란 옥지와 자순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꺾었는데 연근이나 석잠풀처럼 맛이 좋았다. 이러한 소식의 행동에 좌객들은 경박하다고 조롱한다는 내용이다. 시의 행간의 의미는 현실을 벗어나 신선의 세계에 살고 싶다는 소식의 마음을 玉芝나 紫筍을 꺾어 먹는 것으로 비유해 놓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定惠院寓居月夜偶出> 시와 같이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나 그것을 조롱하고 욕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현실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조롱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의 모습들은 현실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데, 이후 東坡를 얻어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려고 도모하고, 황주에 적응하려는 元豐4년(1081)이 되면 소식의 모습도 달라진다.

6) 《蘇軾詩集》(清 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2, 1047-1048쪽 참조): “詩序: 元豐三年五月十一日癸酉, 夜夢遊何人家. 開堂西門, 有小園, 古井. 井上皆蒼石. 石上生紫藤如龍蛇, 枝葉如赤箭. 主人言, 此石芝也. 余率爾折食一枝, 衆皆驚笑. 其味如雞蘇而甘, 明日作此詩.”)

3.2 東坡시기

東坡時期는 元豐4년(1081) 황주 성 동문 밖의 비탈 밭(東坡)을 얻어 직접 농사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시기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시문의 주된 풍조를 이룬다. <與王定國四十一首之十三>을 보면 소식이 東坡에서 농사를 짓는 기쁨을 적고 있다.

근래에 황주 성 옆에 버려진 땅 수십 무를 얻고 소 한 마리를 사서 그 곳에서 뭍소 밭 갈아 농사짓습니다. 올해는 가물어 쌀이 매우 귀합니다. 근래에 비가 내려 밤낮으로 개간하여 보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수고롭긴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도 만나면 즐겁게 지내니 오조피의 도정절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近於側左得荒地數十畝, 買牛一具, 躬耕其中. 今歲旱, 米貴甚. 近日方得雨, 日夜墾闢, 欲種麥, 雖勞苦却亦有味. 鄰曲相逢欣欣, 欲自號鑿糟陂裏陶靖節, 如何?)⁷⁾

이 글은 1081년 2월에 자신의 죄에 연루되어 남쪽 賓州로 유배를 가 있는 王定國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글에서 소식은 東坡에서 농사 짓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도 있으며, 또 東坡 주위의 사람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므로 東晉시대 悠然自適의 삶을 산 陶淵明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鑿糟陂'는 개봉 서남쪽에 있던 습지를 말하는데, 보통은 지저분한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양만 도연명이지 실제 내실은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 무렵 지어진 <與楊元素十七首之八>, <與王定國四十一首之十四>, <與李公擇十七首之九>, <與章子厚二首之一> 등의 散文에는 東坡에서 농사짓는 즐거움과 편안한 정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 소식 인생관 변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런 감정은 <東坡八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www.kci.go.kr

7) 《蘇軾文集》 卷52, 孔凡禮 點校, 北京:中華書局, 1986.

<東坡八首> (第四首)

種稻清明前, 청명 전에 벼 심으니
 樂事我能數. 즐거운 일 헤아릴 수 있네.
 毛空暗春澤, 가랑비 말없이 봄 못 적시면
 針水聞好語. 벼 싹 나왔다는 좋은 소식 들리겠지.
 分秧及初夏, 초여름 모내면
 漸喜風葉舉. 바람맞은 벼 잎 자라는 것 점점 기쁘고,
 月明看露上, 달 밝으면 이슬 위로
 一一珠垂縷. 방울방울 옥구슬 실처럼 드리우겠지.
 秋來霜穗重, 가을 오면 서리 맞은 이삭 무거워
 顛倒相撐拄. 고개 숙여 서로 의지하고,
 但聞蛙隴間, 다만 들리는 것은 논두렁
 蛙蟻如風雨. 비바람 같은 방아깨비소리.
 新春便入甌, 갓 찢은 쌀 시루에 찌면
 玉粒照筐筥. 귀한 쌀 광주리 속 곱기도 하겠지.
 我久食官倉, 내 오랫동안 관가의 녹 먹으니
 紅腐等泥土. 묵은 쌀 진흙 맛 같았는데,
 行當知此味, 이 맛 알게 되리라
 口腹吾已許. 입과 배에게 나는 벌써 약속했네.

<東坡八首> (第七首)

潘子久不調, 潘丙은 오랫동안 과거에 낙방해
 沽酒江南村. 강남의 마을에서 술을 팔고
 郭生本將種, 郭構는 본래 장수의 후예로
 賣藥西市垣. 서시의 모퉁이에서 약을 팔고
 古生亦好事, 古耕道 또한 호사가이니
 恐是押牙孫, 압아관의 후손이었으리라.
 家有一畝竹, (고경도의) 집에 대나무밭 1무 있어
 無時容叩門. 수시로 손님 찾게 하네.
 我窮交舊絕, 내 곤궁하여 예전의 벗들 끊어졌으나
 三子獨見存. 세 사람만 지금 남아있네.
 從我於東坡, 동쪽 비탈 밭에서 나를 따라 일하고
 勞餉同一簞, 일하고 밥도 같이 먹네.
 可憐杜拾遺, 가련한 두보.
 事與朱阮論. 일은 주노나 완생과 논했지만,

吾師卜子夏, 나는 자하를 스승 삼아
四海皆弟昆. 사해 모두 형제네.

위의 두 수의 시는 <東坡八首>중의 일부분이다. 전체 시의 정조는 東坡를 일구면서 새로운 삶의 의욕과 앞날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이 중 위의 제4수는 清明 이전에 벼를 심고 다달이 벼가 자라는 과정과 벼를 수확한 후의 기대감을 상상을 통해 미리 그려보고 있다. 전체 시에서는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이나 괴로운 현실을 초월하여 신선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동경 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생활 속에서 노동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주는 위안이 새로운 돌파구로써 묘사되고 있다. 또 아래 제7수를 보면 황주 일반 백성들인 潘丙, 郭構, 古耕道의 벗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으니 두보가 成都의 草堂에서 사귀던 두 명의 벗 朱老와 阮生에 비하면 자신은 훨씬 杜甫보다 낫다. 소식은 이 일을 자하의 인생관인 '四海皆兄弟'에 비견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벗이 있다는 사실이 소식에게 큰 위안을 주고 소식은 또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시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시의 전체적인 情調는 희망과 기쁨이 소박한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이고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與潘三失解後飲酒>에서는 세상의 得喪보다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滿江風月不論錢'으로도 나타나고, <太守徐君猷、通守孟亨之、皆不飲酒、以詩戲之>에서는 禁酒令이 심해진 상황에서 黃州 知州와 通判인 徐君猷, 孟亨之에게 술을 권하는 해학이 담겨있기도 하다. 훨씬 여유가 생기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 무렵에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곧 극복이 되거나 훨씬 淡化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伯父送先人下第歸蜀詩云“人稀野店休安枕, 路入靈關穩跨驢.” 安節將去, 爲誦此句, 因以爲韻, 作小詩十四首送之>를 보자.

第一首

索漠齊安郡, 삭막한 제안군에
 從來著放臣. 그동안 쫓겨난 신하 정착했는데
 如何風雪裏, 어찌하여 눈바람 속에
 更送獨歸人. 축으로 가는 사람 또 보내나!

第七首

吾兄喜酒人, 형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今汝亦能飲. 지금 너 역시 잘 마시는구나.
 一杯歸誦此, 한잔 술로 보내며 이 시 읊조리니
 萬事邯鄲枕. 만사는 일장춘몽이라.

元豐3년(1080)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준 조카 蘇安節을 보내며 지은 시다. 5언 절구 14수로 연작시이다. 전체 내용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이어지는데, 특히 제1수에서는 ‘索漠’, ‘放臣’, ‘風雪’, ‘更送’의 시어를 통해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점층적으로 심화시켜 슬픔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제7수에서는 ‘萬事邯鄲枕’이라고 하여 현실의 모든 일이 꿈이라고 하여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후 제14수까지 소식은 담담한 어조로 조카를 위로한다. 자신의 혈족인 조카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비판할 듯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淡化시켜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소식은 ‘東坡時期’에 東坡에서의 농사를 통해 삶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이런 희망과 기대는 臨皇亭時期의 내심의 고민을 극복하고 曠達한 인생관으로 나아가게 하는 架橋역할을 한다.

3.3 雪堂시기

東坡時期의 새로운 삶에의 모색과 발견은 元豐5년(1082) 2월 雪堂이 지어진 후부터 元豐7년(1084) 황주를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시기 美的 享受의 인생관과 ‘曠達’의 문학풍격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雪堂記>에서 자세하게 언급된다.

이 당이 지어짐에 나는 눈의 형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 눈의 뜻을 취했네. 나는 세상의 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의 機心에서 벗어났네. 나는 눈이 감상할 만하다는 것도 모르겠고 세상이 의지할 만하다는 것도 모르겠네. 본성의 편안함과 뜻의 적절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모든 생물이 움직이고 크게 밝은 태양이 솟아 올랐을 때 그제야 내가 뒤척이면서 창틈으로 비치는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를 한 번 보는 것에 있을 따름이네. 그대는 나를 버리지 말게, 나는 그대에게 돌아가 리니.”(是堂之作也, 吾非取雪之勢, 而取雪之意. 吾非逃世之事, 而逃世之機. 吾不知雪之爲可觀賞, 吾不知世之爲可依違. 性之便, 意之適, 不在於他, 在於群息已動, 大明既升, 吾方輾轉, 一觀曉隙之塵飛. 子不棄兮, 我其子歸.)

여기서 '눈의 형세(雪之勢)'는 사물의 이해관계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고 '눈의 뜻(雪之意)'은 사물자체의 본연의 규율을 따르고 눈이 주는 시각과 촉각의 형세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雪之意'의 의미는 황주שי기 이전의 <寶繪堂記>에서 보이는 '寓意'의 의미에 상당하는데, 이 '寓意'의 의미는 '留意'와 상대되는 말로 사물과의 利害關係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사물을 즐기면서 잠시 뜻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⁸⁾ 그리고 이 '寓意'와 연관시켜 자신의 본성(性)과 뜻(意)은 눈앞에 펼쳐진 天地自然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데 있다고 한다. 이것은 소식이 密州知州로 있을 때 지은 <超然臺記>의

8) '寓意'와 '留意'의 관점은 熙寧10년(1077) 王晉卿의 寶繪堂에 써준 <寶繪堂記>(《蘇軾文集》卷11)에 먼저 보인다. <寶繪堂記>에서 소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는 사물에 뜻을 맡길 수는 있어도 사물에 뜻을 머무르게 해서 안 된다. 사물에 뜻을 맡기면 하찮은 사물이라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고 훌륭한 물건이라도 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물에 뜻을 머무르게 하면 하찮은 물건이라도 폐단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물건이라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노자는 '다섯 가지 색깔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는 것이며, 다섯 가지 맛은 사람들의 입맛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성인이 이 네 가지를 폐하지 않은 것은 또한 뜻을 맡기기 위함이다.”(君子可以寓意於物, 而不可以留意於物. 寓意於物, 雖微物足以爲樂, 雖尤物不足以爲病. 留意於物, 雖微物足以爲病, 雖尤物不足以爲樂. 老子曰'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田獵令人心發狂.' 然聖人未嘗廢此四者, 亦聊以寓意焉耳.) 이 글에서 소식은 성인도 '寓意'의 측면에서 감각기관의 즐거움을 폐하지 않았다고 하여 事物에 대한 享受를 긍정했다. <雪堂記>(1082년)의 '寓意'의 관점은 烏臺詩案 후 생활의 실천과 사색을 통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욱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無往而不可樂’의 관점에 근거한다. <超然臺記>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면, 이 글에서는 ‘寓意’의 美的享受의 측면이 첨가되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식 황주시기 후반기의 ‘曠達’과 美的享受의 삶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雪堂記>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元豐5년) 1082년 정월 20일 반병, 광구과 함께 교외로 나가 봄을 찾고 작년 이날 같이 여왕성에 가서 시를 지었던 일을 기억하고 이에 전문에 화답하다(正月二十日, 與潘、郭二生出郊尋春, 忽記去年是日同至女王城作詩, 乃和前韻)>에서도 나타난다.

東風未肯入東門, 동풍이 동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走馬還尋去歲村. 말을 달려 작년 갔던 마을 찾아 간다.
人似秋鴻來有信, 사람은 기러기처럼 오는 일 어김없지만,
事如春夢了無痕. 지난 일 봄꿈 같아 아무런 흔적도 없네.
江城白酒三杯釀, 강마을 백주 세 잔에 얼큰히 취하고
野老蒼顏一笑溫. 시골 늙은이 거뭇한 얼굴 가득 웃음에 훈훈하네.
已約年年爲此會, 해마다 이렇게 만나길 약속하니
故人不用賦招魂. 벗들은 <초혼>가를 부를 필요 없네.

봄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갔던 곳을 찾아 가본다. 봄을 찾는 사람은 어김없이 오지만 작년에 봄을 찾아왔던 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식은 ‘萬事那鄴枕’ 같은 인생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과의 多情한 만남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소식의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인간의 情을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보고 그 情을 나누는 것이야 ‘事如春夢’의 인생에서 자취를 남기는 방법이라고 한다.⁹⁾ 앞에서 인용한 <東坡八首>에서 삶의 모색과 발견

9) 소식의 ‘情’을 중시하는 논의는 冷成金の <從《東坡易傳》看蘇軾的情本論思想>(《文學與文化的張力》, 上海: 學林出版社, 2002.)에서 《東坡易傳》을 중심으로 ‘情’의 함의를 철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 필자는 소식의 《東坡易傳》이 黃州시기에 초고가 완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황주시기에 ‘情’에 대한 언급이 자주 인용된다는 측면에서 소식에게 ‘情’이 중시되었고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에서만 사용한다.

이 여기서는 다정한 이와의 즐거운 만남이라는 즐거움에 중점을 두면서 <雪堂記>에서 언급한 '寓意'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또 소식은 가난과 배고픔의 현실보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삶을 강조한다.

<次韻孔毅父久旱已而甚雨三首> (第一首)

飢人忽夢飯甑溢, 배고픈 사람 문득 꿈에 밥하는 시루 가득하니,
 夢中一飽百憂失, 꿈에서 배부르니 모든 근심 사라졌네.
 只知夢飽本來空, 꿈속에서 배부른 것 본래 헛됨을 알겠지만
 未悟眞飢定何物, 실제 배고픔이란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겠네.
 我生無田食破硯, 내 살면서 땅이 없어 부서진 벼루로 먹고 살았는데
 爾來硯枯磨不出, 요즘엔 벼루도 말라 갈 수도 없네.
 去年太歲空在酉, 작년 태세성 헛되이 유쪽 방향에 있어
 傍舍壺漿不容乞, 이웃집에서 한 병 술도 구할 수 없었고
 今年旱勢復如此, 올해 가뭄의 형세 또 이와 같으니
 歲晚何以黔吾突, 세모에 무엇으로 굴뚝을 검게 만들까?
 青天蕩蕩呼不聞, 푸른 하늘 아득하여 불러도 듣지 못하는데
 況欲稽首號泥佛, 하물며 머리 조아려 진흙불상 부르는 것이라?
 甕中蜥蜴尤可笑, 웅기 속 도마뱀은 더더욱 우스워
 跂趾脈脈何等秩, 엉금엉금 기며 뚫어저러 쳐다보니 무슨 차이가 있으랴?
 陰陽有時雨有數, 음양은 때가 있고 비도 수가 있으며,
 民是天民天自卹,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니 하늘은 분명 공휼히 여길 것이네.
 我雖窮苦不如人, 내 비록 궁하고 힘들어 다른 사람만 못하지만,
 要亦自是民之一, 어쨌든 역시 한 명의 백성이네.
 形容可似喪家狗, 물골은 집 없는 개와 같아도
 未肯聳耳爭投骨, 귀 쫓긋 세우고 던져놓은 뼈다귀에 다투고 싶지 않네.
 倒冠落幘謝朋友, 관과 머리띠 던져놓고 벗들도 물리치며
 獨與蚊雷共圭華, 혼자 모기와 더불고 사립문 지키네.
 故人嗔我不開門, 벗들은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꾸짖고
 君視我門誰肯屈, 그대는 내게 누가 찾아 올거냐는 식으로 보네.
 可憐明月如潑水, 사랑스런 밝은 달은 물을 끼얹듯
 夜半清光翻我室, 한 밤중 맑은 빛 내 집에 쏟아 붓고
 風從南來非雨候, 바람 남쪽에서 와도 비올 조짐 아니지만
 且爲疲人洗蒸鬱, 지친 사람 위해 더위를 씻어주네.
 褰裳一和快哉謠, 바지 걷고 쾌재의 노래 화답하니

未暇飢寒念明日. 배고픔과 추위로 내일을 걱정할 겨를 없네.

이 시는 3수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며 총 30구로 된 7언 고시이다. 1082년 여름은 매우 덥고 비도 오지 않다가 10여 일 동안 비가 내려 온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¹⁰⁾ 비가 오기 전의 심한 더위와 가뭄을 겪은 상황에서도 隨緣自適의 삶을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배불리 먹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온갖 근심이 사라질 만큼 소식에게 작년에 이어 올 해도 가뭄이 심하여 수확이 걱정스럽다. 하지만 陰陽의 調和에 의한 하늘의 이치는 분명 때가 있고, 또 백성의 부모인 하늘은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앞의 불행에 좌절하고 작은 이익으로 다룰 필요 없다.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가뭄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이지만 끝내 해결되는 것이 또 하늘의 이치이기도 하다. 궁벽한 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벗들은 불행하다고 여기겠지만 시각을 바꾸어보면 이 때야 말로 是非와 得失의 현실적 관점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면서 자연과 벗 삼고 살 수 있다. 농사에 도움 되는 비를 내릴 바람은 아니지만 한편으론 바람은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생을 길게 보고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즐겁만한 것으로 변한다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¹¹⁾ 앞에서 인용한 <東坡八首>나 <與潘三失解後飲酒>, <太守徐君猷、通守孟亨之, 皆不飲酒, 以詩戲之>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과 발견으로 '曠達'의 초기적 성격이 드러났다면 이 시에 와서는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시각이 자리를 잡았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의 가치를 즐기는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이 시가 지어진 후 1달 후에 지어지는 <赤壁賦>에서는 '淸風明月'이라는 미적 향수로 나타나고 元豐7年(1084) 4월 황주를 떠나기 전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시풍이다.

10) <答李方叔十七首之一> (《蘇軾文集》 卷53, 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6.): “今歲暑毒十倍常年. 雨晝夜不止者十餘日, 門外水天相接, 今雖已晴, 下潦上蒸, 病夫氣息而已.”

11) 《宋詩概說》(吉川幸次郎 著, 호승희 역, 東文選, 2007, 123-163쪽 참조)에서는 소식의 이러한 인생관을 '거시철학'과 '비에의 지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4. '曠達' 풍격의 양상

元豐5年(1082) 2월 雪堂이 지어진 후 삶을 길게 보는 태도와 시각을 달리하는 관점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찾아내는 경향이 심화된다. 특히 '일상생활에 대한 享受'와 '諧謔的 표현'은 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1 일상생활에 대한 享受

또 이러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경향은 <元修菜>에서는 고향 축지방의 채소에 대한 묘사에서도 나타난다.

<元修菜>

彼美君家菜, 저 훌륭한 그대 집안의 채소
 鋪田綠茸茸, 밭 가득 푸르고 무성하네.
 豆莢圓且小, 콩 같은 열매 둥글고 작으며
 槐芽細而豐, 해나무 싹은 잘지만 풍성하네.
 種之秋雨餘, 가을 비 내린 후 심으면
 擢秀繁霜中, 된 서리 속에 무성하게 자라네.
 欲花而未萼, 꽃필 듯 꽃 받침 아직 나지 않았을 때
 一一如青蟲, 하나하나 청충과 비슷하네.
 是時青裙女, 이 때 청색치마 입은 여인들 따니
 採擷何怱怱, 따는 것이 얼마나 바쁘지.
 烝之復湘之, 찌고 다시 삶으면
 香色蔚其饌, 향과 색 그릇에 가득하네.
 點酒下鹽豉, 술을 테우고 된장 내오고
 縷橙芼薑葱, 등자열매 잘게 찢고 생강과 파도 곁들이면
 那知雞與豚, 닭고기 돼지고기 맛을 어찌 알겠는가?

但恐放箸空. 다만 입 안 가득 먹다보면 없어질까 두렵지.
 春盡苗葉老. 봄 끝 잎 세지면
 耕翻烟雨叢. 연기 비 서린 덩불 뒤집어 가니
 潤隨甘澤化. 윤기는 단비처럼 자라게 하고
 暖作青泥融. 따뜻함은 청니의 온기 일으키네.
 始終不我負. 항상 나를 저버리지 않으니
 力與糞壤同. 지력은 똥거름과 같네.
 我老忘家舍. 내 늙어 집도 잊었고
 楚音變兒童. 초나라 말씨는 아이들도 바꾸어 놓았는데
 此物獨嫵媚. 이 물건만 유독 사랑스러워
 終年繫余胸. 늙어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네.
 君歸致其子. 그대 돌아가 종자 가져올 때
 囊盛勿函封. 주머니에 담고 봉하지는 말게나.
 張騫移苜蓿. 장건이 목숨을 옮겨 심으니
 適用如葵苾. 적당한 쓰임 아욱이나 배추와 같았고.
 馬援載薏苡. 마원이 율무를 실어오니
 羅生等蒿蓬. 이곳저곳 자라는 것이 쑥과 같았지.
 懸知東坡下.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동쪽 비탈 밭
 培鹵化千鍾. 척박한 땅 귀한 곳으로 바뀌리라.
 長使齊安民. 길이 제안의 백성들이
 指此說兩翁. 이것을 가리켜 두 늙은이 말하게 해야지.

이 시는 元豐6년(1083) 1월에 지어진 시로 巢菜에 대한 맛과 흥치를 소식이 즐기며 지은 시다. 이시는 첫머리부터 해학을 담고 있다.¹²⁾ 巢菜와 巢元修는 원래 아무 관련이 없지만 巢菜의 이름과 巢元修의 성이 같아 元修菜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巢菜의 모양새 생장과정, 요리하는 법, 뛰어난 맛, 거름으로서의 효능 등을 설명문을 기술하듯이 자세하게 적고 있다. 끝으로 巢菜를 심어 황주에 길이 남겨 자신과 巢元修를 기억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에 흐르는 情調는 이전 시에서 보이던 복잡한 감정의 기복은 존재하지 않고 일상

12) <元修菜> 詩序: “菜之美者, 有吾鄉之巢. 故人巢元修嗜之, 余亦嗜之. 元修云: 使孔北海見, 當復云吾家菜耶? 因謂之元修菜. 余去鄉十有五年, 思而不可得. 元修適自蜀來, 見余於黃. 乃作是詩, 使歸致其子, 而種之東坡之下云.”(《蘇軾詩集》, (清)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2.)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 즉, 元修菜의 가치를 그대로 즐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次韻孔毅父久旱已而甚雨三首>의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소식의 이러한 시각은 황주를 떠나기 전까지 일관되게 흐르는데 자연 사물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食甘>에서는 黃柑의 맛과 흥치를 <橄欖>에서는 橄欖의 가치를, <寄周安孺茶>에서는 茶의 맛과 가치를 그대로 즐기며 묘사하고 있다.

4.2 諧謔的 특징

소식의 諧謔性은 단순한 우스갯소리와 달리 고난 의식을 淡化시키고 悲哀를 解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³⁾ 황주로 폼적 온 초기에 소식은 자신에 대한 嘲笑를 통해 깊은 비애의 감정을 조절한다.

<初到黃州>

自笑平生爲口忙, 평소 입 때문에 바쁜 걸 우스워했는데
老來事業轉荒唐. 늙을 수록 하는 일마다 더욱 황당하네.
長江繞郭知魚美, 장강 둘러있는 성곽이라 물고기 맛있음을 알겠고
好竹連山覺筍香. 좋은 대 가득한 산이니 죽순 향기로울 것이네.
逐客不妨員外置, 쫓겨난 몸 원외랑도 무방한데
詩人例作水曹郎. 시인들은 예부터 수조랑이었지.
只慚無補絲毫事, 다만 부끄러운 것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못하면서
尙費官家壓酒囊. 오히려 관가의 녹만 축내는 것이네.

烏臺詩案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녹봉도 거의 없는 團練副使로 폼적된 신세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슬픔에 젖을 법한데 슬프다는 말 대신 황당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貶謫地 黃州의 물고기와 죽순 맛을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13) 王水照, 앞의 책, 316-317쪽 참조.

員外郎이라는 閒職에서 예로부터 시인들이 많았고 게다가 봉급도 준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자신에 대한 해학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淡化시키고 있다. 또 인생의 有限性에 대한 해학적 표현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경향도 있다.

<岐亭五首> (第四首)

夜深欲踰垣, 밤 깊어 담 넘어 가려다가
臥想春甕泣. 누워 술 익는 소리 생각하네.
君奴亦笑我, 그대 노복도 나를 보고 비웃으니,
鬢齒行禿缺. 귀밑머리 이빨은 부질없이 성글고 듬듬듬성.
三年已四至, 3년 사이 이미 네 번이나 왔으니
歲歲遭惡客. 해마다 불청객을 만난 셈이네.
人生幾兩屐, 인생 나막신 몇 켤레이던가?
莫厭頻來集. 자주 온다고 싫어하지 말라

이 시는 元豐5년(1082) 1월 소식이 네 번째로 陳季常을 찾아 갔을 때 쓴 시다. 시에서 소식은 진계상과 술을 마신 후 사대부의 체통은 말이 아니다. 또 자주 들락거려 하인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진계상의 하인도 嘲笑를 날리는데 소식은 그에 대해 인생이 길어봤자 나막신 몇 켤레로 대변되는 삶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주 온다고 소식 자신을 나무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시는 진계상의 하인에게 자신이 자주 찾아온다고 비웃지 말라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해학적 표현이 담겨 있다. 해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상상력과 생각으로 당면한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현재의 고난을 잊고 극복하게 한다. 특히 설당시기에 소식의 시각을 달리하여 보는 태도는 이런 특징을 더욱 강화시켰다. 가령 앞에서 인용한 시 <元修菜>에서 巢菜를 巢元修의 이름을 따서 命名하는 발상이 그러하다. 전혀 무관한 두 사물사이의 관계를 아주 작은 특징을 잡아 하나로 묶어내어 기발하면서도 은근한 웃음을 자아낸다.

<書子美屏跡詩>

“졸렬함으로 나의 도를 보존하니 그윽한 살림 물정에 가깝네. 뽕나무 삼은 비와 이슬에 깊어지고 제비 참새 받은 자라네. 마을의 북 때때로 급하니 고깃배 각각이 가볍네. 지팡이는 백발을 따르고 마음과 자취 다 맑아 기쁘다네. 늦게 일어나도 집에 무슨 일 있겠으며, 할 일 없으니 땅은 더욱 그윽하네. 대나무 빛깔은 들 빛을 뒤덮고 산 그림자 강물에 출렁이네. 배움을 그만두고 아이를 따라 게으르고 오랜 가난 부인 근심 짓게 하네. 백년간 혼연히 취하고 한 달간 빚질 안 하네.” 자점이 “이것은 동파거사의 시다.”라고 하자 혹자가 “이것은 두보의 <병적>시인데 거사가 어찌 그것을 흠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벼 삼 곡식과 보리는 신농씨와 후직에게서 시작되어 지금 집집마다 곡식이 있게 된 것이다. 주지 않았는데 가진다면 도둑이 되고 도적질 당한 사람은 물건을 잃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반드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농씨와 후직의 물건이 된다. 지금 그 시를 살펴보면 글자마다 모두 거사의 실록이니 그렇다면 이것은 거사의 시이니, 두보가 어찌 내가 가지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用拙存吾道, 幽居近物情. 桑麻深雨露, 燕雀半生成. 村鼓時時急, 漁舟箇箇輕. 杖藜從白首, 心跡喜雙清. 晚起家何事, 無營地轉幽. 竹光團野色, 山影漾江流. 廢學從兒懶, 長貧任婦愁. 百年渾得醉, 一月不梳頭。」子瞻云:「此東坡居士之詩也。」或者曰:「此杜子美《屏跡》詩也, 居士安得竊之?」居士曰:「夫禾麻穀麥, 起於神農、后稷, 今家有食廩, 不予而取輒爲盜, 被盜者爲失主. 若必從其初, 則農、稷之物也. 今考其詩, 字字皆居士實錄, 是則居士詩也. 子美安得禁吾有哉!」)¹⁴⁾

이 글은 서적이나 碑帖, 글씨나 그림에 남기는 題跋문으로 소식의 曠達의 인생관이 형성된 元豐5년(1082)에 지어졌다. 이 글에서 소식은 집집마다 쌓여 있는 곡식은 따지고 보면 농사를 처음 시작한 神農씨와 后稷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神農씨와 后稷에게서 훔쳤다고 하지 않는다. 神農씨와 后稷에게서 가져왔다고 해도 자신이 땀 흘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杜甫의 시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후에 소식은 나름대로 체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소식의 시라는 것이다. 두보의 시와 소식의 체험에는 같은 감정만 공유하고 있지 시는 본래 두보의 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체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題跋文은 기발한 想像을 통한 諧謔의 특징을 가지는데

14) 《蘇軾文集》 卷67, 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6.

<元修業>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雪堂시기 이후 소식 시뿐만 아니라 詞와 산문에도 이러한 해학적 요소는 곳곳에 넘친다. 기발한 상상한 통한 해학적 특징은 현실의 고난을 淡化시키는 역할을 하고 읽는 이에게 은근한 웃음을 선사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식 황주시기 시의 '曠達'풍격 형성에 대해 단계적 고찰과 '曠達'풍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생관의 변화에 따라 문풍의 변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생관의 변화에 근거하여 黃州시기를 3분기하고 그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시기는 臨臯亭시기로 烏臺詩案 이후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였고, 두 번째 시기는 東坡에서 직접 농사짓는 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기이면서 농사에서 오는 기대와 희망이 시에 드러났다. 세 번째 시기는 雪堂시기로 美的 享受의 인생관과 '曠達'의 문학 풍격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曠達'풍격의 형성은 주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났다. '日常生活의 享受'와 '諧謔的 特征'이 그것이다. 풍격은 작가의 성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써 어떤 작가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풍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본풍격 위에 또 다양한 풍격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소식의 黃州시기 '曠達'풍격은 晚年 惠州와 儋州의 平淡풍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曠達'풍격의 형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소식의 사람됨이나 문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參考文獻 >

- (清)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2.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6.
 孔凡禮 撰, 《蘇軾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8.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司空圖 著, 曹冷泉 主釋, 《詩品通釋》, 西安: 三秦出版社, 1989.
 王水照, 《王水照自選集》,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冷成金, 《文學與文化的張力》, 上海: 學林出版社, 2002.
 吉川幸次郎 著, 호승희 譯, 《宋詩概說》, 서울: 東文選, 2007.
 元鍾禮, <蘇軾 詩의 '曠'-逍遙遊의 曠蕩과 無住清靜의 超曠>, 《中國文學》 36집, 2001.11.

< 中文提要 >

蘇軾因烏臺詩案而貶謫黃州, 以後他的人生觀、文學創作發生了深刻變化。文學史一來般說, 黃州時期, 他的文學風格從豪放變到曠達。對於曠達風格形成過程, 本文試就蘇軾貶於黃州後的詩作三個階段進行分析, 還考察一下曠達詩風如何展開。

關鍵辭: 黃州, 曠達, 享受, 諧謔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10.1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